

실천적 종교개혁자 울리히 츠빙글리

Ulrich Zwingli

원종천 (아신대 교수)



설교자 츠빙글리_ 그로스민스터 사원의 정문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는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에 이어 두 번째 종교개혁자로 알려져 있다. 루터가 가장 먼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츠빙글리는 바로 그 다음 스위스에서 개신교 종교개혁을 이끌었다. 츠빙글리 개혁은 루터의 개혁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많은 신학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루터가 수도사로서 깊은 중세 가톨릭 영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에 비해, 츠빙글리는 인문주의자로서 성경연구에 몰두했던 인물이다. 츠빙글리는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의 전통과 영성에 깊이 들어가 있던 루터와 달리 성찬론, 예배의식 등에서 중세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벗어났고, 구원론에서 루터보다는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츠빙글리는 장로교 사상의 근간이 되는 개혁주의의 시조로, 이후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 의해 발전하게 된다. 츠빙글리의 개혁

은 성경사랑, 교회사랑, 사람사랑으로 그의 개혁 방식은 매우 실천적이었으며, 그의 개혁 이상은 지체롭게 현실적으로 펼쳐졌다.

츠빙글리의 시대상

츠빙글리가 활동을 시작한 16세기 초는 중세 말 로마 가톨릭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유럽의 많은 통치자와 정부는 로마가톨릭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었고,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일반 대중들은 로마가톨릭교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심각한 영적 빈곤과 절망을 겪고 있었다. 성경적 복음을 배우지 못해 구원의 확신이란 없었고, 공포의 신앙이 주를 이루었으며, 선행과 예식을 통한 구원의 길이 선포되었다. 독일 비텐베르그(Wittenberg) 시에서 시작된 마



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독일 전역과 유럽으로 퍼져 나가면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일반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었다.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가 활동하던 취리히(Zurich)가 개혁의 진원지가 되었고 개혁의 불씨가 다른 스위스 도시들로 전파되면서 소위 스위스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 당시 13개의 도시 정부로 이루어진 스위스 연방은 각각의 도시 정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었고 필요할 때에만 스

위스 연합체로서 역할을 했다.

츠빙글리는 1484년 취리히에서 80킬로미터 떨어진 스위스의 작은 마을 빌트하우스(Wildhaus)에서 탄생했다. 그는 도시에서 교육받고 활동했지만, 시골에서의 성장 배경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마을 관리의 아들로 태어난 츠빙글리는 유럽의 안정적이고 종교적이며 단순하고 평범한 옛 삶의 배경에서 성장했고, 바젤(Basel)과 베른(Berne)

에서 기초교육을 받았다. 14세에 비엔나 대학(University of Vienna)에서 라틴어, 고전문학, 중세철학, 중세신학, 천문학, 물리학 등을 공부했고 음악에 남다른 소질이 있었다. 18세에 바젤(Basel) 대학에 입학하여 중세 전통교육을 받았고 20세에 학사학위, 22세에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인문주의자로 성장했는데, 바젤에서 그의 멘토가 된 토마스 비텐바크(Thomas Wyttenbach, 1472-1526)를 만났으며 그의 영향으로 성직금혼, 희생제사 개념의 미사, 교황의 권위, 면죄부 매매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1506년 석사학위를 마친 후 츠빙글리는 로마가톨릭 교회의 사제가 되어 글라루스(Glarus)에서 목회를 시작했으며 고전 공부와 교부 연구에 열심이었고 특히 성 어거스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츠빙글리는 스위스 용병 사업을 심각하게 우려하게 되었다. 스위스 용병은 용감하고 싸움 잘하기로 유명해서 스위스 경제에 도움을 주었으나, 글라루스에서 군목으로도 활동하던 츠빙글리는 용병 사업의 부도덕성에 대해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었다. 나중에(1521년) 그는 취리히의 목회자로 있으면서 일방적으로 스위스의 용병 매매 사업을 중단했다. 이것은 다른 도시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츠빙글리는 개의치 않았다. 1516년 츠빙글리는 아인시덴(Einsiedeln)으로 자리를 옮겼다. 츠빙글리의 용병에 대한 비판으로 글라루스의 관리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었던 것이다. 아인시덴에서 츠빙글리의 역할은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그곳에서 성경연구에 심취했는데, 그 결과 그의 강단은 성경적 설교로 변하기 시작했다. 츠빙글리는 헬라이어 학자가 되었고 히브리어에도 능숙하게 되었으며 그의 풍부하고 정확한 성경 지식은 당시 교회 문제를 적나라하게 밝혀내기에 충분했다. 루터와는 독립적으로 츠빙글리는 1518년 면죄부 매매 사제 베른하르트 산손(Bernhard Sanson)

을 비판함으로써 교회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츠빙글리의 사역

1518년 츠빙글리는 취리히의 유명한 대 민스터(Great Minster)교회의 사제로 결정되었고, 1519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에 몰두했다. 1519년 1월에 취리히에 도착한 츠빙글리는 바로 성경적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취리히에서는 과거에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성경적 설교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 취리히 시의회는 1520년부터 모든 취리히 성직자들에게 츠빙글리의 성경적 설교를 따라하도록 요구했다. '오직 성경'의 원칙은 스위스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츠빙글리의 성경 사랑과 취리히 시정부의 동참 그리고 대중의 동의는 스위스 종교개혁 성공의 원천이었다. 츠빙글리의 개혁 원칙은 성경을 근거로 교회의 전통적 예식과 관습 및 가르침들을 점검하여 이것이 신약의 복음 메시지를 선양시키는지 점검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가리거나 불분명하게 만든다면 순종할 수 없음을 선포했다. 여기에는 중세 로마가톨릭교회가 실행해 오던 강제금식, 성인기도, 연옥의 가르침, 강제 십일조, 성상숭배, 성직가운착용, 가톨릭 교회음악 등이 포함되었다.

1522년 2월 취리히 개혁의 분위기는 전통에 반항하는 사건을 촉발시켰다. 개혁자들은 출판업자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렌텐(Lenten) 금식(고기를 먹지 않는 금식)을 위반하고 소시지를 먹었다. 이것은 개혁자들에게 닥친 첫 번째 심각한 위기였다. 츠빙글리는 이 위반행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취리히 관리들은 소시지 사건이 더 심각한 문제의 시작이 될 것을 예감하고 출판업자와 참여자들을 구속했다. 그러나 츠빙



글리는 설교에서 금식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포했다. 렌텐 금식일에 소시지를 먹는 것이 성경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짓밟는 교회의 횡포를 용납할 수 없었다. 1522년 7월 츠빙글리는 또 하나의 전통을 개혁하는 시도를 했다. 교회의 오랜 전통인 성직자금혼 제도였다.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중세 로마가톨릭교회는 전통의 미명 하에 강제적으로 집행했고, 그것은 성직자들에게 수많은 성적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으며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츠빙글리와 스위스 성직자들은 성직결혼의 허락을 감독에게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결과 1523년 1월 취리히에서 첫 번째 공식 논쟁이 열렸다. 취리히 정부의 명령으로 600명의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모였다. 당시 심각한 종교적 차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 시점부터 취리히 정부는 종교개혁을 장악했다. 취리히 정부는 이 논쟁에서 성경만을 권위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논쟁은 츠빙글리의 승리로 끝났다. 시정부는 취리히 성직자에게 설교를 성경으로만 국한하도록 명령했는데, 이것은 츠빙글리와 같은 생각이었고 그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취리히 정부가 츠빙글리의 성경적 원칙을 승인했지만, 전통적 의식과 관습들을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하지는 못했다. 일반 대중에게 급격한 변화의 실천은 물의와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개혁의 원칙은 정해졌으나 실행은 연기되었다. 이것은 개혁당에 문제가 되었다. 개혁당 소속 과격파 부류는, 설교는 성경으로만 하게 하면서 관습은 전통적인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즉각적 실천 이행을 요구했고, 즉시 미사를 철폐하고 성상 사용을 금하라고 요구했다. 취리히 시정부가 뜰을 들이면서 성상 파괴가 일어났다. 과

격파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다. 이것은 1523년 10월에 두 번째 공식 종교적 논쟁을 갖게 했고, 시정부와 입장을 함께하고 있는 츠빙글리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츠빙글리는 시정부의 방침에 따라 점진적인 개혁을 시도하기로 했다. 논쟁 후 성상과 미사를 폐지하기로 하되,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하고 결국 8개월 후인 1524년 6월에 취리히 정부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성상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1524년 12월 시정부는 수도원을 탈취하고 아직 스스로 떠나지 않은 모든 수도사들을 프랜시스칸 수도원에 강제적으로 모이게 했다. 1525년 4월 미사가 철폐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혁당은 분열되었다.

2차 취리히 논쟁 이후, 재세례파의 설립자가 된 콘라드 그레벨(Conrad Grebel)은 츠빙글리에 반대하는 과격파를 만들었다. 개혁 초기에 두 사람은 좋은 관계였으나 분열을 피하지 못했다. 그레벨은 츠빙글리가 초심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가 폐지를 주장했던 것들을 바로 이행하지 못하고 참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츠빙글리가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관리들과 타협했으며 자신의 신념을 수행할 용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레벨 자신이야말로 개혁당의 원래 원칙을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츠빙글리는 말씀만 선포하면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했고, 개혁을 위해 정부의 도움을 바라보며 그 힘을 사용하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개혁도 중요하지만 취리히 시정부를 개혁에서 제외시킬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만이 아니라 정부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믿었고, 정부도 교회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중세 로마가톨릭 전통에 젖어 있던 일반인들이 옛 관습을 타파하고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츠빙글리는 당시 교회와 사회 그리고 정부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함께 가는 개혁이 옳다

고 생각했다.

이들의 견해 차이는 유아세례 문제에서 불거졌다. 과격파는 자신의 신앙을 알지도 고백하지도 못하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아세례를 반대했다. 과격파는 성인세례만 인정했고 유아세례자는 다시 세례 받을 것을 주장했다. 츠빙글리는 유아세례가 중요한 종교 및 사회적 예식이라고 여겼다. 새생명이 회중과 시민 가운데 주어졌고 그들은 아이를 하나님과 인간의 법에 순종하도록 키우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1525년에서 27년 사이에 츠빙글리는 유아세례의 성경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관계로 말미암은 신약의 세례와 구약의 할례 사이의 연관 관계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유효하며, 그 언약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언약의 보증자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다. 이것은 츠빙글리의 대단한 공헌으로 개혁주의의 핵심인 언약신학의 시발점을 장식했다. 구약의 할례에 유아할례가 있는 것처럼 신약의 세례에도 유아세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츠빙글리는 유아세례를 구약 유아할례의 신약적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의 연속이고, 유아의 수동성과 무력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겸손을 말해 준다고 보았다.

1525년과 1530년 사이에 츠빙글리의 가르침은 스위스와 남부 독일에 넓게 퍼졌다. 츠빙글리의 개신교는 루터주의보다 더 중세 로마가톨릭기독교로부터 멀어졌다. 루터주의는 전통적 음악과 예식을 유지했지만, 츠빙글리안주의는 오르간을 교회에서 금지할 정도로



츠빙글리의 생가

예배 의식을 간소화하고 말씀에 집중했다. 루터파는 성찬이 물리적으로 은혜를 보존하고 전달한다고 주장했으나 츠빙글리파는 성례가 징표와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츠빙글리안주의는 루터주의보다 성상파괴 쪽에 훨씬 더 집중했다.

츠빙글리안주의가 더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톨릭 도시들은 1526년 바덴(Baden)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논쟁을 벌였다. 논쟁은 가톨릭의 승리로 끝났다. 이것에 대응하여 1528년 개신교 도시들은 베른에서 중요한 개신교 지도자들이 모였다. 이 모임을 통해 1528년 베른은 개신교로 전향했고 이 사건은 스위스 종교 개혁을 견고하게 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베른의 개신교는 도시연합회 내에 츠빙글리안주의를 견고하게 했고, 후에 칼빈이 사역할 제네바를 개신교로 전향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베른이 개신교로 전향하자 개신교 정치 지도자 필립(Philip of Hesse)은 루터파와 츠빙글리파의 연합을 통해 정치 군사적 유익을 얻고자 했다. 필립은 루터와 츠빙글리가 신학적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정치적 연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1529년 마르부르크(Marburg)에 있는 자신의 성에 두 사람을 초빙하여



그로스윈스터 교회 옆 작은 청동문_ 종교개혁 모습

종교적 합의를 갖도록 주선했다. 두 개신교 그룹은 이미 분열되어 있었다. 1529년 루터주의자들은 성찬에 대해 츠빙글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고 스위스와 남부 독일 지역을 자신의 울타리에서 제외시켰다. 루터파는 츠빙글리를 과격파로 여겼다. 츠빙글리도 루터파의 성찬론을 수용할 수 없었다. 만일 그가 루터파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스위스 종교개혁은 정치적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루터의 성찬론은 가톨릭과 유사했고 가톨릭은 이것을 이용하여 벌써 루터파와 츠빙글리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었다. 루터와 츠빙글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르부르그에 왔다.

떡과 포도주 그리고 그리스도의 존재 양식을 놓고 루터와 츠빙글리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루터의 문자적 해석과 츠빙글리의 상징적 해석은 같이 갈 수 없었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 차이는 논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루터는 츠빙글리에게 심하게 분노했고 츠빙글리는 루터의 입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애석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필립과 주변 개신교 지도자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둘은 마르부르그 조항을 만들고 14조항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남겼다. 성찬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기로 동의하고 서로를 신사적으로 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1530년 이후 결국 루터파와 츠빙글리파는 성찬론에 동의하지 못하고 각자 다른 길로 갔다.

스위스에서는 1529년 가톨릭 도시들과 개신교 도시들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졌다. 도시들은 교회적 입장을 정했고 사회적 평화를 위해 그것을 지키고자 했다. 가톨릭 도시와 츠빙글리 도시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 가톨릭 도시 영역에서 개신교 목사가 설교하다가 체포되고 처형되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전쟁이 일어났으나 16일 만에 종결되었다. 1차 카펠(Kappel) 전쟁이라 일컫는 이 사건은 개신교 쪽의 승리로 끝났다. 1529년 6월 24일 개신교 군대가 취리히에서 돌진해 오자, 그것으로 휴전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양쪽은 도시들이 자유롭게 종교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531년 2차 카펠 전쟁이 발발했다. 개신교 설교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톨릭 주에 경제적 봉쇄를 가했기 때문이었다. 가톨릭 도시 군대는 준비되지 않은 취리히 군대를 무찌르고 이 전쟁에서 츠빙글리는 전사했다.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진리를 위해 투쟁하고 복음을 위해 적을 무찔러 것이며 승리해야 했다. 츠빙글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츠빙글리 교훈

츠빙글리로부터 배우는 가장 우선적 교훈은 성경사랑이다. 그의 모든 사상과 활동은 결국 성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철저하게 성경으로 무장했다. 인문주의 배경을 통해 성경을 원어(헬리어, 히브리어)로 통달하고 복음의 핵심 내용과 성경 전반의 유기적 관계 및 신구약의 통일적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핵심은 복음이었고 성경 전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 츠빙글리에 의한 언약신학의 출발은 그의 성경사랑에서 나온 것이었다. 츠빙글리는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고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났다. 복음에 위배되는 어떤 가르침이나 관습도 잘못된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도 있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츠빙글리의 정확한 성경 해석을 통한 진리의 확신은 교회 개혁을 위한 강한 의지로 발전되었다. 성경의 진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당시 로마가톨릭교회의 수많은 관습과 제도 그리고 가르침은 개혁의 대상이었다. 성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빼앗아갔다. 성도들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행위와 관습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습성을 교회가 키워 놓은 것이다. 복음의 진리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츠빙글리는 생각했다. 복음은 사람을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하고 잘못된 인간의 관습과 제도를 타파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중세 로마가톨릭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었다. 츠빙글리의 교회사랑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개혁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무리 진리가 옳고 제도가 잘못되어 그것을 고치려 해도 사람들이 호응하고 따라오지 못하면 그릇된 것이다. 제도와 관습

안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츠빙글리는 개혁을 단행했지만 정교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질서와 사람들의 변화 적응을 위해 개혁의 속도를 조절했다. 개혁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사람들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혁 과격파의 반대에도 츠빙글리는 사람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허락하며 개혁을 진행했다. 츠빙글리의 사람사랑 정신이 작동한 것이다.

과격파는 정부와 손잡고 개혁을 진행하는 츠빙글리를 비판했다. 과격파가 시대적으로 앞서간 것은 사실이다.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정교분리는 상식화되었다. 사회와 정부가 세속화되고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4세기 이후 종교개혁까지 1000년 이상 동안 항상 교회는 정부와 관계를 맺어 왔다. 물론 문제도 많았지만, 당시 종교 차이로 전쟁이 발발하는 역사적 현실 가운데 정교관계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츠빙글리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다. 교회 개혁의 이상을 품으면서도 현실적 상황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졌던 것이다. 이상을 현실에서 이루고자하는 열심이 지혜를 밝힌 것이다.



글 | 원종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이자 한국 복음주의신학회 부회장이다.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M.Div., Ph.D.(역사신학 전공)) 수학과 동대학과 예일대학에서 연구교수 봉직했으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무처장, 대학 원교회처장, 국제교육원장, 대학원장,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회장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칼빈과 청교도 영성』,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중세영성의 진수: 성 버나드』, 『칼빈의 신학과 경건』 등이 있다.